



## 교토시 무도센터

교토시 사쿄구 쇼고인 엔토미초 46-2  
전화 075-751-1255

### 오시는 길

교토시버스「구마노진자마에」하차, 동쪽으로 도보1분. 또는 시버스「오카자키코엔 료음 시아타 교토/미야코 멧세 마에 (전시장)」하차 북서쪽으로 도보3분. 자동차이용시에는 근처 오카자키공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관시간 9:00-21:00

휴관일 연말연시

시설 이용시는 사전수속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용카드도 발행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전화 075-313-9131

시설 견학을  
원하시는 분은  
무도센터 본관 1층  
관리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



발행 공익재단법인 교토시 스포츠협회  
교토시 우쿄구 니시교고쿠 신메이초 1번지  
전화 075-315-4561 팩스 075-315-4521

URL <http://www.kyoto-sports.or.jp/>

이 팸플렛은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무도전문학교의 기념비

## 교토시 무도센터의 개요



### ■본관

철근철골콘크리트2층건물 실내면적4,032m<sup>2</sup>.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도는 물론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실내스포츠도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체육관입니다.

설비●주경기장 (1,344m<sup>2</sup>)·보조경기장 (310m<sup>2</sup>/타타미 180장정도), 관객석 (880명), 라커룸, 샤워실, 회의실 등

### ■구무덕전 (旧武徳殿) 국가중요문화재

목조단층건물 실내면적1,051m<sup>2</sup>.  
검도, 유도, 나기나타 등의 무도연습이나 경기대회의 회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설비●경기장 (타타미200장정도), 내빈대기실, 관객석 등

### ■공도장

철골단층건물 실내면적 (526m<sup>2</sup>). 과녁과의 거리가 28m로 한변에 10명씩 이용할 수 있는 궁도장으로 신채장애자도 이용하기 쉽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비●활터 (긴테키 10명 동시경기), 사격장, 내빈실, 심판실, 야미찌 (활잡는곳), 탈의실 등

### ■스모장

철골구조단층건물 면적 (113m<sup>2</sup>). 전통의 국기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야구라」가 설치된 옥의 씨름관입니다.

설비●야구라 부설의 씨름판장, 탈의실, 발 씻는 곳, 모래두는 곳 등



스모장



궁도장



### 오카자키공원 주변 주요관광지

■오카자키공원야구장·테니스코트  
가까이서 히가시야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오카자키 관리사무소  
전화 075-771-0297

### ■헤이안신궁

헤이안천도 1,100을 기념하여 헤이안교의 다이리를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주황색을 칠한 신전의 뒤에는 광대한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 ■비와코스스이

교토근대화 유산의 하나 사계절마다 다른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소스이준공 10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된 기념관이 있습니다.

### ■교토시 교세라 미술관

대규모 전람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컬렉션을 자랑하는 상설전시회도 수시로 개최합니다.

### ■교토시권업관 (미야코멧세)

교토시내 최대급의 이벤트장,

전시장, 회의, 파티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전통산업관도 함께 있습니다.

### ■무린안

메이지시대 일등공신·야마가타아리토모의 별장으로, 교토를 대표하는 정원가의 한사람, 우에지 (7대째 오가와 지헤이)의 대표작입니다.



비와코스스이



교토시 교세라 미술관



교토시권업관 (미야코멧세)



무린안



도전하는 마음  
연마하는 기술  
단련하는 몸

「심·기·체」의 조화를  
실천하는 일본무도의  
전당 교토시 무도센터로  
초대합니다



구무덕전 (旧武徳殿)

교토시 무도센터

공익재단법인 교토시 스포츠협회

## 존속의 위기를 극복하고 부활한 무도의 성지 — 구무덕전 (旧武徳殿)

일찍이 일본의 수도로서 번영한

교토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점재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연무장인 『구무덕전 (旧武徳殿)』

도 그중 하나이며 헤이안신궁과 마찬가지로 수도천도 1100

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899년 조영되었습니다.

설계는 교토부청사 구분관(일본의 중요문화재)등을 손수 설계한

마츠무로시게미츠입니다.

그 후 전문학교가 병설되어 수많은 무도가와 교육자를 배출한

일본무도의 성지로서 활용되었으나 2차세계대전후에는 미군에



인수되어 무도전문학교는 폐교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다시 인수된 후에도 오랫동안 본래의 기능을 잃었으나 구무덕전 (旧武徳殿)을 보존 ·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무도가들의 원조를 받아 1987

년에 수복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일본무도역사를 말해주는 중요한 건축물로

평가되어 1996년에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품격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무도의 전당」은 무도의 국내경기나

국제시합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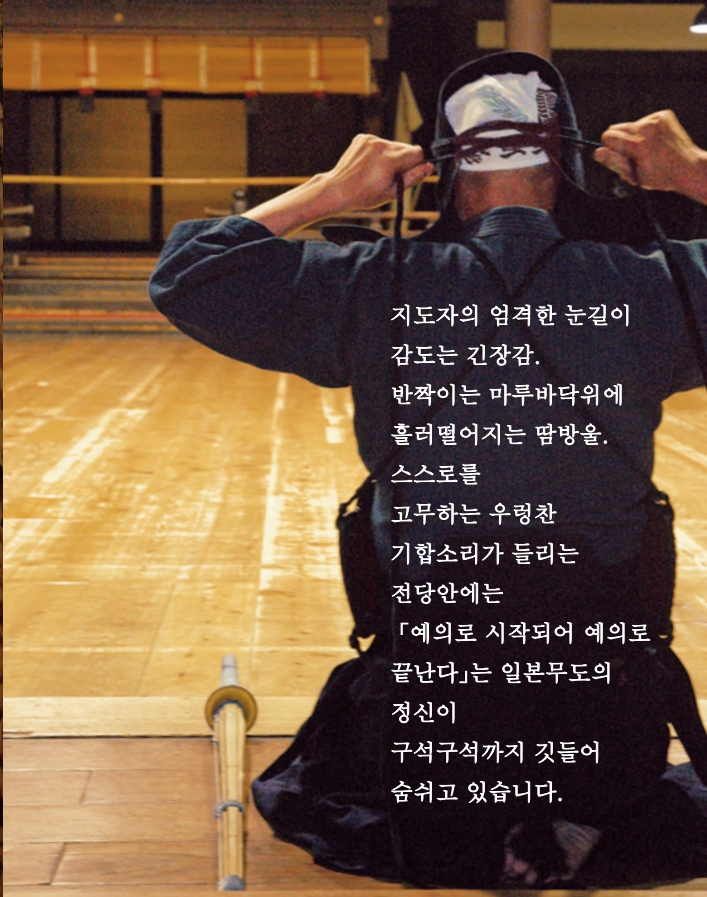
일본무도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설입니다.



목화

타타미가 깔려있는 관람석이 마루바닥을 둘러싸고 있으며 북쪽 중앙에는 코케라부키 (얇은 판자로 이은 지붕의 일종) 카라하후 지붕이 있는 옥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엄격한 눈길에

감도는 긴장감.

반짝이는 마루바닥위에

홀려떨어지는 땀방울.

스스로를

고무하는 우렁찬

기합소리가 들리는

전당안에는

「예의로 시작되어 예의로

끝난다」는 일본무도의

정신이

구석구석까지 깃들여

숨쉬고 있습니다.

## 교토시 무도센터에서는 다양한 무도 대회와 연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 검도, 아이아도

중세 무가사회에서 발달한 무예로

검술의 정신을 전해주는 무도입니다.

기술 습득을 통해 마음의 수련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도 (刀)

대신 죽 (竹) 도를 사용해

연습합니다.호면 호완 갑 갑상 등

특징적인 부도구를 사용합니다.

상대와 칼로 겨루는 검도와 달리



칼집에서 칼을 뽑고 적을 쓰러뜨려서 칼집에 넣을 때까지의 아름다움 동작과 기술의 정확성들을 겨루는「아이아도」도 있습니다.

### ■ 유도

유도술을 모태로 태어난 무도로 일본의

국기 중 유일한 올림픽경기이며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경기로는

체중별로 계급이 분류되어 있으며

들어치기 (投技), 메치기 (固技) 등을

구사해서 몸이 작은 선수가 몸이 큰

선수를 던져 넘어뜨리는 것이 유도의

매력입니다.

### ■ 스모

세계 각국에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스모는 일본 국기로 일본 고래의

「신도」와 연결되는 신사 (神事)이기도

합니다.



### ■ 궁도

「자신, 활, 과녁」의 삼위일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궁도입니다. 사소한 마음의

흔들림이 사술에 장애를 초래합니다.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물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이 요구됩니다.

### ■ 나기나타

옷차림이나 시합 방법 등은 검도와

비슷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무기의



길이가 2m이상이나 되는 나기나타 (薙刀)의 신속한 움직임 속에서 다토츠 (쳐들어가거나 찌름)의 기회를 찾아내어 기술을 겨룬다는 점입니다.

### ■ 공수도

원래 류큐 (현재의 오키나와)에서

발전해온 무술이 다이쇼시대

(1912~1926)에 일본 본토에서

소개되어 유도와 결합하면서 침투되어

쇼와시대 (1926~1989)에 공수도로서

정립됐습니다. 유도와의 큰 차이는

상대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타격



### ■ 무술태극권 (무술)

중국 무술에서 유래하는 무술태극권은

격투기나 호신술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무술로도 알려져 널리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및 세계에서는

「무술 (우슈)」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 ■ 합기도

모든 무도의 장점을 모아서 만들어진

무도입니다. 특징은 「스스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상대의 기와 자기의 기를

맞춰서 격기,던지기,굴리기등의 기술을



연습이 행하여집니다.

### ■ 소림사권법

1947년일본에서 송도신이 창시 한

무도로 가르침 · 기법 · 교육 시스템에

의해 자신과 용기, 행동력과 자비심을

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가르는 “사람 만들기의 행” 이 소림사

권법의 이념입니다.

모두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자기를

확립하여 서로 도와가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길을 행하고 있습니다.